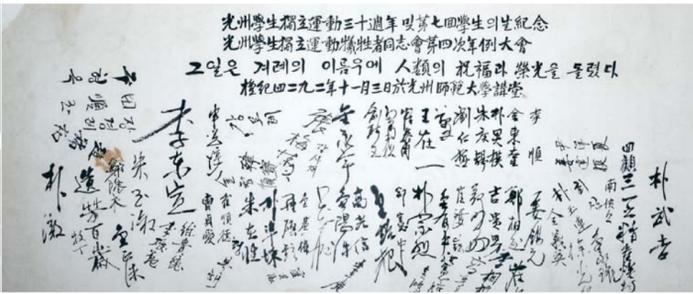


역사물줄기 바꾼 독립운동



1926년 광주에서 조직된 항일학생운동단체 성진회 결성 사진. 오른쪽은 광주학생독립운동 참여 생존자 서명 문서(1959년).



광주 학생들의 저항정신

5.18광주민주화운동 서른아홉 돌을 맞이하는 이즈음 광주 시민들의 저항 정신의 뿌리인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의미를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꾼 10장면' 전시가 올 연말까지 국립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두 번째 전시가 6월 16일까지 펼쳐진다. 전시관 1층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제3주제 '독립운동'과 제4주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모티브로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의 의의와 전개과정을 담았다. 전시장에는 당대 활동상과 유물 등이 전시되어 독립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먼저 제3주제 '독립운동'은 전라도 출신 의병과 농민들의 항일운동에 초점을 맞췄다. 전라도 출신 의병과 농민들의 항일운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이 소개돼 있다.

신남일(1871-1910)은 1908년 3월 강진 오치동 전투를 시작으로 13차례 전투를 벌여 일본 군정 400여명을 사상하게 했던 독립운동가다. 그의 항일투쟁기를 기록한 '진지록'에는 장흥, 남평, 능주, 영암, 나주, 해남, 보성 등지의 전투 장면이 생생히 기록돼 있다.

또한 독립운동가 임병찬(1851-1916)은 1906년 2월 의병장 최익현과 함께 태인 의병을 전개하는 등 항일 운동에 역력한 공을 세웠다. 백정기(1896-1934) 독립운동가는 1932년 흑색공포단을 조직했다. 그는 상하이 주중 일본 공사 암살 사건인 '육삼정사건'을 일으킨 주인공이다. 계획이 누설돼 수포로 돌아갔지만 운봉길 의거, 이봉창 의거와 함께 해외 3대 의거로 꼽힌다.

198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된 정협섭(1896-1981)은 기관지 '탈환'을 발행했다. 그는 1929년 재만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을 결성해 일제에 항거했다.

제4주제 '광주학생독립운동'에서는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주역들의 유품과 사진을 매개로 독립을 열망했던 광주 학생들의 염원을 느낄 수 있다.

'성진회'는 1926년 11월 3일 광주에서 조직된 항일학생운동단체로, 당시 장재성(1908-1950)은 성진회를 주동하고 광주학생운동을 주동한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았다. 장재성을 비롯해 정우재, 김창주, 김광용, 최규창, 안중익, 박인생, 정남균, 왕재일, 장재성, 문승수, 김한필, 정종석, 정동수, 임주홍, 채영석 등이 성진회 결성에 참여했다.

왕재일(1904-1961)과 최규창(1908-1949)은 성진회 조직



국립광주박물관에서 6월 16일까지 열리는 '독립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전.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오월창작가요제 본선, 5·18민주광장 특설무대에서

25일 10팀 경연... '안치환과 자유' 축하공연

제9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 본선 무대가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5·18민주광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지난 12일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피크닉장에서 진행된 2차 예선 현장 라이브 경연 결과로 선정된 10팀이 본선 무대를 장식한다. 이날 공연은 가수 이안의 사회와 함께 '지켜라! 오월의 역사를! 싸워라! 진실의 노래로!'를 주제로 광주 예술인들이 함께 준비한 환영 공연으로 문을 연다. 전년도 가요제에서 '무명'으로 대상을 수상한 정밀아의 축하공연과 오월창작가요제

본선 경연, 밴드 '안치환과 자유'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본선 경연에선 김지원의 '필레꽃 오월', '반말(Vanmal)'의 '엄마는 박사모', '노은석 밴드'의 '소망', '시나 쓰는 엘리스'의 '검은 사막', '봉다리'의 '따뜻해졌어 지혜', '벼동'의 '태움' '서던 터미널(Southern Terminal)'의 'Keep on Fighting', '보엠(BOHEME)'의 '생은 아름다워라', '폰디 체리'의 '아무도 모르지', 임예송의 '반찬'이 무대에 오른다.

자세한 정보는 오월창작가요제 홈페이지(www.maymusicfesta.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82-0518.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지난해 대상을 수상한 정밀아의 공연. <(사)오월음악 제공>



'원보틀' 힐링콘서트

오늘 송정마을 카페서 첫번째 공연

'원보틀'의 힐링 콘서트 'BOTTLE LIVE(보틀라이브)' 첫 번째 공연이 20일 오후 7시 송정마을 카페이공(광산구 송도로 257-1)에서 열린다.

광주시,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2019문화예술펀딩프로젝트 만세만세 만(萬)만(滿)계' 모금활동으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의 주제는 '추억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대구 싱어송라이터 LIVE O(라이브 오)의 협업을 함께하는 이날 무대는 원보틀이 자체 편곡한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삽입곡, 영화 '엽기적인 그녀' 삽입곡 등으로 채워진다.

이날 공연에서는 성년의 날을 기념해 20세를 맞은 관객에게 선물을 주는 행사도 함께한다.

'보틀라이브'는 공연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수동적 공연 형태에서 벗어나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공연을 목표로 한다. '보틀라이브'는 20일 공연을 시작으로 8월 21일, 11월 13일 핑크노이즈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참가비 5000원. 문의 062-670-7957.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제 1회 전남여고 재학생 백일장'

1학년 양수민 양 '백색소음' 대상

제1회 전남여고 재학생 백일장에서 1학년 양수민 양의 시 '백색소음'이 대상에 선정됐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전남여고문인회(회장 최은정)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백일장에는 시 105편, 산문 35편 등 총 140편이 응모했다.

대상 외에도 시와 산문 각 부문별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3명, 장려상 19명 등 모두 30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으로는 최은정·윤소현 수필가, 김경옥 문학평론가, 오소후·김애순·김정희 시인이 참여했다.

한편 이번 백일장은 '전남여고문화회에서 활동할 미래의 문인을 발굴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1개월 간 '가족'을 주제로 하는 작품을 인터넷 공모로 모집해 최종심사를 거쳤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문학 장려금과 8월 발간 예정인 전남여고문인회 '문집(가칭)'에 특집으로 게재된다.

시인인 오소후 심사위원장은 "응모작들이 전반적으로 가히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하는 수준작이었다. 가족을 주제로 하는 이번 공모의 수상작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글쓰기의 환경에 대한 생각과 이웃과의 연대감, 예전부터 있었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세계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기원 **객실 25% 할인 판매**

행사기간 **2019년 7월 10일 ~ 28일**
예약/문의 062-228-8000 / 221-4114

신양파크호텔 www.shinyangparkhotel.com